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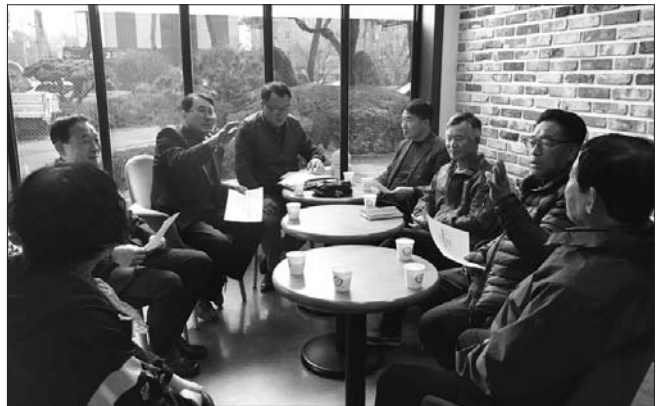
전북은행장문화재단
전북여고서 JB 인문학 강좌
박상미 더공감 마음학교 대표 초청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8일 전북여자고등학교에서 제19회 '2018 JB 인문학 강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강좌 초청을 받은 박상미 대표는 경찰대학 교양 교육교수, 더공감 마음학교 강사,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마음이 넉 누구니 저지로 전북여자고등학교 1, 2학년 550여명을 대상으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 됐다. 박대표는 학생들에게 "좋은 어른이 손을 내밀어 잡으려 할때 그 손을 꼭 잡을 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본인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자신의 꿈을 꺾하지 말고 지금의 고물이 미래 희망의 스퀘어 되고 지금의 흥터가 미래 아름다운 무너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은행장문화재단에서 201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JB 인문학강좌는 현재까지 도내 16개교 5,47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어져 청소년들의



(재)전북은행장문화재단은 지난 8일 전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8 JB 인문학 강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의 소통, 공감이 되는 대표적인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사업 할 계획이 /김영태 기자



임실 관촌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관촌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관)는 지난 9일 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018년 연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당면 군정 및 민정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안전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내달 15일에 개최되는 연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에 따른 계획 및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종관 위원장은 "다양한 문화활동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현 관촌면장은 "앞으로도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촌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풍물, 난타, 요가, 서예, 민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촌 문화의 집(☎640-43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농어촌공, 수질환경보전회 · 합동수질관리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오진휴)는 최근 지자체, 의회, 농민대표 등 10명이 참여하는 순창지사 수질환경보전회를 구성하고 지사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 및 수질오염 저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질환경보전회는 발대식과 함께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을 위한 운영계획 설명,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역할 제고 방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를 통해 순창시 군의원과 최면식 유등연장, 김철욱 팔덕면장, 정대균 환경정책계장, 설골공 농업기반계장, 정중수 환경단체 지회장, 임흥래 농업인 대표 등 10명의 의원은 상호 협력해 지역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대산저수지에서 합동수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순창=이왕원 기자

정읍경찰서 ·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8일 정읍소방서와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소방훈련은 경찰청사 대형 화재사고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인명·장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훈련 1회, 자체훈련 1회 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에서는 경찰서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지정해 자체 소방 시설을 활용한 자위 소방대 초기 대차와 화재 통보, 인명 대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순으로 이어졌다. 한도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자위소방대 초기 대차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신속한 대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범죄·사고 제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임실지구 한마음대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임실지구 '2018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지역연합회 임실지구(회장 김병이)는 지난 9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점관에서 '2018 임실군 법사랑 한마음대회'를 갖고,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심 민 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윤용걸 전주지점장,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현 임실경찰서장, 이선홍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 등과 지역 내 초·중·고교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마음대회에서는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민간 자원봉사자인 법사랑위원들이 앞장설 것을 함께 결의했다. 나아가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초·중·고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참여 학생들의 학구열과 준비의식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심 민 군수는 축사에서 "그동안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온 법사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와 건전하고 진취적인 생활로 효연지기의 기상을 키워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임실지구에서는 청소년 선도 상담 운영,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 법사랑 글짓기 대회, 보호관찰 지원 등 다양한 면서도 지역의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공직자들, 전북 119 안전체험관서 소방안전체험

진안군은 지난 9일 공무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3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재난종합체험과 위기탈출체험으로 진행됐다. 화재발생시 응급처치요령, 태풍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완강기, 수직구조대, 경사 하강식 구조대 교육도 이어졌다. 이날이 증가하는 각종재해에 초기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위주 교육들로 채워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여러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더 이상 자유로운 곳이 없다. 안전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진안이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쇄신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북경찰청-전북농협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협약

전북지방경찰청(김인철 청장), 전북농협(유재도 부부장은)은 지난 9일 농협전북본부에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농업인 실익 제고, 공명선거 추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적극적인 실행방안 모색과 세부 추진 과제를 실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조용진 교수, 미 농생물학회 '최우수 논문상'

전북대학교 조용진 교수(농생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사진)가 최근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미국농생물공학회(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s) 연차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Superior Pape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미국농생물공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상위 5%의 우수논문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분야 최고 권위의 논문상이다. 조 교수는 광반사와 전기, 물리성 측정 센서들을 이용해 현장에서 다양한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세 가지 방법에 의한 측정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또한 토양 지역 및 깊이별 정보를 반영하여 각각의 센서 측정 정확도는 물론 기존의 측정방법에 의한 것보다도 토양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정보의 예측 정확도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 논문은 지난해 미국농공학회지(Transactions of the ASABE)에 게재됐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송동면, 다문화가족 간담회

남원시 송동면은 지난 8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20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목공예체험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송동면 관계자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적 관계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해 가족간의 문제를 예방하고, 참여한 가족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 뿐인 책꽂이를 직접 만들어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목공예 체험에 참석한 이노마따사찌고(48일본)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녀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선재 송동면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화합과 소통을 잘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눔

임실군 지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회장 조완열, 최남)에서는 지난 9일 지사면 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배추 1,000포기와 고추, 마늘 등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긴 김치는 10kg씩 100박스로 포장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김장하기가 힘든 관내 독거노인과 불우소의 계층,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조완열 회장은 "올 겨울 회원들이 담긴 김치를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운 지사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추운 겨울을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